

2021
Vol. 2
통권 제16호

Daejeon Sejong
Research
Institute



SEJONG — INSIGHT

세종인사이트



SEJONG RESEARCH INSTITUTE

2021
Vol. 2



CONTENTS

- 03 세종시에 숨어있는 '일제 잔재'에 관한 이야기 | 이 재 민 연구위원
- 08 세종시 합강습지 관리 정책방향 | 이 윤 희 책임연구위원
- 12 세종시 읍면지역 노후건축물의 안전관리방안 | 지 남 석 책임연구위원



I. 일제 잔재 찾기, 왜 중요한가?

- **우리 삶에 스며든 일제 잔재**
 - 과거 우리나라는 식민지배를 받으면서 일제의 언어와 생활양식 등 문화 전반을 강제로 수용할 수밖에 없었으며, 해방 이후에도 제대로 청산되지 못한 일제 잔재는 우리 지역 곳곳에 스며들어 있음
 - 특히 반민족행위를 일삼았던 친일파를 청산하기 위한 위원회를 조직하였으나, 친일 세력의 방해로 실패하였으며, 이데올로기의 대립으로 인한 국토분단은 이를 청산할 기회마저 가질 수 없게 됨
- **일제 잔재 찾기, 왜 중요한가?**
 - 국가 차원에서는 지역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성찰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으며, 주민들의 심리적 자산으로 새로운 가치를 높일 뿐 아니라 스토리텔링 기법을 통해 새로운 복합문화공간으로 생산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
 - 세종시 차원에서는 신도시로서 역사적 취약점을 극복할 수 있고, 결합지역으로서 지역주민 공동체 의식을 제고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선도적인 연구를 통해 세종시 정책 차별성을 획득할 수 있음

II. 일제 잔재란 무엇이며,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?

- **부정적이고 청산대상으로서 ‘일제 잔재’**
 - 청산대상이자 부정적인 과거의 유물로서 ‘씻을 수 없는 민족의 상처’를 의미하며, 이는 현재까지도 우리 사회에 분열과 비민주화의 원인으로 작용 되고 있어 이를 청산해야 한다는 민족주의적 관점임
- **지역 정체성을 이루는 ‘역사적 유산’**
 - 일제강점기는 수탈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, 근대화의 초석이 세워진 것은 인정함으로써 이 시기에 형성된 문화자원은 나름의 의미가 있다는 관점임
 - 설령 수탈의 상징이라 할지라도 식민통치의 잔혹함을 보여주는 산 증거로 삼고, 향후 이와 같은 역사적 치욕을 반복하지 않도록 교훈의 의미를 담아 보존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임
- 경기도와 광주광역시에서도 일제 잔재 청산과 활용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여, 지역에 스며든 잔재를 발굴함으로써 이를 활용하고자 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음

III. 세종시의 친일인물

- 세종시(과거 연기군·전의군·조치원읍)에서 태어난 친일인물 10명

세종시 직종별 친일인물 출생자				
(단위: 명)				
관료(군수, 중추원 참의)	판 사	경 부	언론인	가 수
5	2	1	1	1

1) 이재민(2021), ‘세종시 일제강점기 문화자원의 잔존현황과 활용방안’의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작성하였음

세종시에 숨어있는 '일제 잔재'에 관한 이야기

- 다른 지역에서 출생하여 세종시에서 활동했던 친일인물 23명

세종시 직종별 친일인물 출생자			
(단위: 명)			
군 수	면 장	경 찰	기 타
8	2	6	7

IV. 세종시에 숨어있는 일제강점기 '잔재'

● 세종시에서 나타나는 일제 잔재 양상

세종시 일제 잔재 양상

세종시
일제 잔재

- **비 석**
 - 전의면사무소 전정 친일인물 송덕비 2기 (송덕비, 영세불망비)
 - 연동면 내판리 마을회관 일제강점기 면장 송덕비 2기
 - (구) 연남초등학교 황국신민서사의 비 (연기향토박물관 소장)
 - (구) 연서초등학교 황국신민서사의 비 (연기향토박물관 소장)
 - 친년농장비 (연기향토박물관 소장)
- **건축물**
 - 조치원읍 신흥센터 3길 8-1 소재 적산식 가옥
 - 소정리역 창고 (과거 직원 관사)
 - 과거 내판역 직원 관사
- **흔적(터)**
 - 신사의 흔적 (연기신사, 진의신사, 대평신사)
 - 공동묘지의 흔적

● 비석

- 전의면사무소 전정에 세워진 친일인물 비석 2기(동일인물)
 - 전의면사무소 전정에는 애국지사 추모비를 비롯하여 6기의 비석이 세워져 있으며, 이 중 2기가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권○용의 비석으로 확인됨





- 연동면 내판리 마을회관 주변에 있는 일제강점기 면장 A와 B의 송덕비 2기
- 면장 A와 B는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일제강점기 면장은 강제 징용·공물 수탈·지원병과 위안부 동원 등 실무를 담당하였으며, 이에 친일인물로 간주해도 무방함

면장 A의 송덕비



면장 B의 송덕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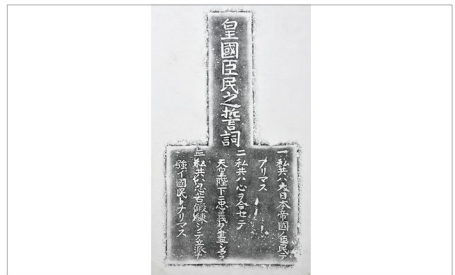
- (구)연남초등학교 황국신민서사의 비(연기향토박물관 소장)

- 과거 연남초등학교에 세워졌던 황국신민서사의 비로,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황국신민서사가 새겨져 있음

과거 연남초등학교에 세워졌다고 전해지는 아동용 황국신민서사의 비



황국신민서사 아동용 탁본



- (구)연서초등학교 황국신민서사의 비(연기향토박물관 소장)

- 과거 연서초등학교에 세워졌던 황국신민서사의 비로, 현재에도 서사 일부가 남아있음

과거 연서초등학교에 있었던 황국신민서사의 비



황국신민서사 성인용 탁본



세종시에 숨어있는 ‘일제 잔재’에 관한 이야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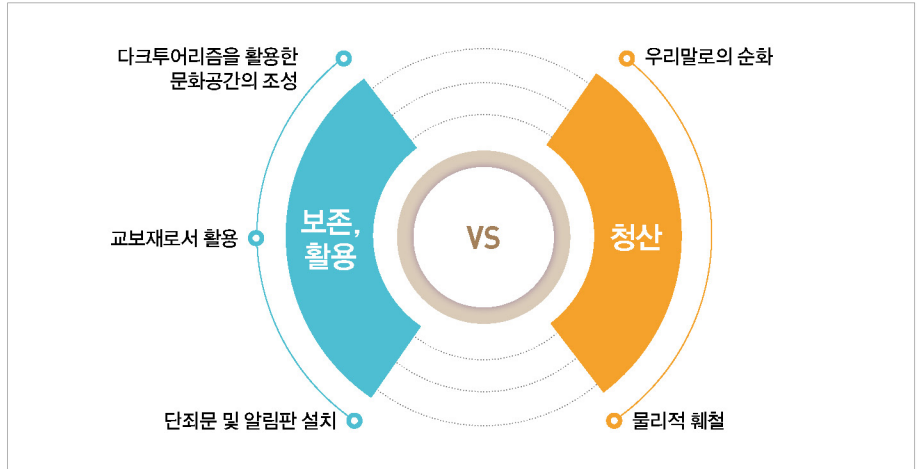
- 천년농장비(연기향도박물관 소장)
 - 1931년 금남면 대평리에 조성한 천년농장 비석임
- 건축
 - 조치원읍 신흥샐터 3길 8-1 소재 적산식 가옥
 - 과거 식산은행 직원관사 또는 조치원역 직원관사로 활용되었다고 추정되는 적산식의 건물이며, 현재에 방치되어 있음



- 소정리역, 내판역 창고
 - 소정리역 창고, 내판역 창고는 과거 직원관사로 활용되었으며, 현재에도 과거의 양식이 확인되고 있음
- 흔적(터)
 - 과거 세종시(연기군)에는 세 곳의 신사가 있었다고 전해짐
 - 연기신사(총령탑), 진의신사(전의면 카센타 뒷 구릉), 대평신사(버스터미널 부근)
 - 조치원 침산리에는 공동묘지의 흔적이 발견됨
 - 중앙공원은 일본인 공동묘지가 세종시문화예술회관은 조선인 공동묘지가 있었던 것으로 주민들의 구술로 확인하였음



V. 세종시 일제 잔재, 청산과 활용이라는 갈림길에서



보존 · 활용적 측면

- 최근에는 일제강점기와 같이 부정적인 역사적 상징물이라 하더라도, 이를 자원화하고 나아가 지역정체성을 정립하기 위한 상징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
- 이 같은 경향에서 이 연구를 통해 발견했던 일제 잔재를 바탕으로 다크투어리즘의 적용과 기획, 도시재생을 통한 문화공간 조성, 교보재로서 활용, 단죄문 및 알림판 설치 등의 세부 활용전략을 세울 수 있음

청산적 측면

- 최근 활용적 측면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사실이지만, 물리적 훼손과 삭제 · 순화 등의 방안으로 청산해야 할 일제강점기의 유 · 무형의 상징물도 여전히 존재함
- 친일인물 비석은 그대로 놓여서 전시하는 사례(한밭교육박물관, 인천향교에서 발견된 친일인물 박제순 공덕비를 철거한 사례 등이 있음
-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언어, 놀이 등의 관습에도 일제 잔재가 있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끊임없는 조사 · 연구가 필요함

I. 들어가며

● 합강습지의 생태적 가치에 대한 관심 증가

- 세종보 개방 이후 합강습지의 생태적 가치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합강습지의 현황 및 시민의식수준을 조사하여 관리정책 방향성을 설정하고, 향후 관련 계획수립시 구체적인 정책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

II. 합강습지 현황 및 시민의식조사 결과

● 합강습지 일반현황

- 합강습지는 금강과 미호천 합류지점의 하도습지로 대평습지와 명확습지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주변 습지와 연속성이 뚜렷하며, 장남평야와 전월산 및 금강의 제지류인 미호천과 연결되는 다양한 생태계로 이루어짐
 - 생물다양성이 높은 하도습지로 습지등급 및 서식처평가 I등급으로 평가됨

합강습지 일반현황			
위 치	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26-118	지 리 좌 표	(위도, N) 36°30'45.48" (경도, E) 127°18'49.74"
면 적	2,008,789 m ² (해발고도: 15m)	습 지 유 형	하천형 내륙습지-하도습지
습 지 등 급	I등급	습지보전등급	1등급
서식처평가	1등급	식 생 평 가	IV등급

자료 : 환경부·국립습지센터(2014), 「2014 전국내륙습지 정밀조사(II)」, 국립생태원(2019), 「제2차 전국내륙습지 모니터링(19) 5권(충청3)」

- 세종시가 행정도시로 지정되기 전 과거 원시적 형태의 합강습지는 금강과 미호천의 합수부로 강폭이 넓고 여름철 홍수가 지나면 습지 내 모래톱이 형성되어 다양한 동식물의 서식지 역할을 했음
-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준설작업과 세종보 건설로 습지의 육상화가 지속되면서 모래톱의 감소가 나타났으나 최근 보 정책의 변화로 수문이 개방되면서 습지 내 대량의 모래가 퇴적되어 모래톱이 재형성되고 있음



자료 : 국토정보플랫폼(<http://map.ngii.go.kr>)



● 생태계변화관찰 모니터링 결과 종합

- 2018년 5월 생태계변화관찰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보전적 가치를 인정받았으며,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매년 모니터링이 진행되고 있음
 - 매해 관찰 분야가 상이하여 항목간 비교에는 한계가 있음
- '18년 조사에서 멸종위기야생생물 I급인 흰꼬리수리 및 멸종위기야생생물 II급인 독수리 등이 발견됨
- '19년 조사에서는 가시박 및 아까시나무가 번창하여 인위적인 제거 조치가 필요하며, 외래종인 하상 금계국, 기생초에 대한 장기관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

생태계변화관찰 결과			
2018년		2019년	
관찰 분야	어류, 조류, 포유류	관찰 분야	어류, 식물상,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
식생정보 및 주요 생물상	조 류: 16종 523개체 포유류: 2종 어 류: 6과 15종 261개체	주요 동식물의 변화	가시박, 아까시나무 번창 ※ 제거 필요 - 습지식물상 비교적 단순(하상에 버드나무, 뽕나무, 아까시나무 등 고목 존재)
법정보호종, 멸종위기종, 국내고유종 분포 및 출현	- 법정보호종 : 멸종위기야생생물 I 급인 흰꼬리수리 1개체 - 멸종위기종 : 멸종위기 야생생물 II 급인 독수리 4개체 - 국내고유종 : 가시납지리, 치리 등 2종 출현	외래종 유입	하상 금계국, 기생초 분포 ※ 장기관찰 필요
외래종 유입 및 생태계 교란종	배스, 블루길 2종 확인	조치 필요사항	가시박, 돼지풀, 아까시나무와 족제비싸리 개체수가 증가될 경우 습지식물 군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적절한 인위적 제어 조치 필요

자료: 금강유역환경청(2018~2019), 「생태계변화관찰 결과」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

● 시민의식조사 결과

- 세종시민 410명을 대상으로 합강습지의 '보전' 및 '활용'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및 습지보호지역 지정 필요성 등에 대해 시민의식수준을 조사한 결과,
 - '보전과 활용 모두 중요하다'는 58.8%, '보전이 더 중요하다'는 36.3%, '활용이 더 중요하다'는 4.9%로 조사되었으며, 절대 다수가 습지보호지역의 지정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함

Ⅲ. ————— 합강습지 관리 정책방향 설정

● 습지보호지역 지정 추진

-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의 활동을 통해 자료를 축적하고,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해야 함

● 지속가능한 관리보전 계획 수립

- 합강습지의 지속가능성과 회복 탄력성을 고려한 관리보전계획 수립이 반드시 필요함

세종시 합강습지 관리 정책방향

합강습지의 자연문화 가치 공유 및 인식 제고

- 자연계 문화재로서 합강습지의 생태성, 지속가능성, 보호가치성 등의 공유 및 인식의 제고가 필요함

자연과 인간이 공생하는 활용계획 수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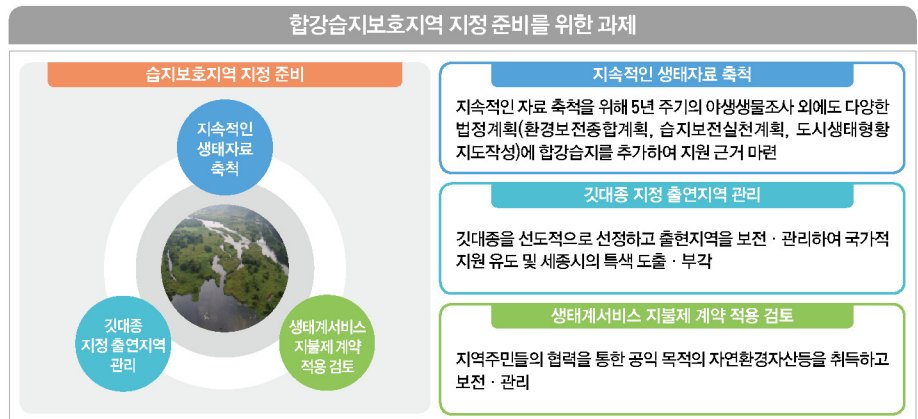
- 합강습지와 전월산, 국립세종수목원을 잇는 생태축과 명학습지 및 대평습지를 포함한 습지축을 구축하여 생태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, 생태관광 자원 및 교육장 등으로 활용토록 함

합강습지의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검토

- (법적가치) 합강습지는 「습지보전법」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지정 기준에 부합하며, 현재 생태계변화관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음
- (입지적 생태가치) 금강의 대평습지와 명학습지 사이에 위치하면서 두 습지를 연결하고 있어 생태적으로 매우 중요한 입지이며, 금강의 습지생태축 보전관리를 위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될 가치가 있음
- (생물적 다양성 가치) 다양한 멸종위기종(삼, 수달, 금개구리, 맹꽁이 등)의 출현이 확인된 바 있으며, 산림(영적산, 전월산 등) 입연부와 접해 있어 멸종위기조류중(참매, 큰고니, 흰꼬리수리, 흰목물떼새 등)이 자주 출현함
- (지리적 희소가치)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세종·대전·충청권의 유일한 하천습지(두웅습지와 서천갯벌 : 연안, 대청호추동습지 : 저수지)로서 희소성 있는 선도적 입지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

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과제와 기대효과

- (준비과제) 지속적인 생태자료 축적, 깃대종 지정 및 출현지역 관리,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적용 검토 등이 필요함
- (기대효과) 합강습지는 양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금강의 습지들(대평습지, 명학습지)로 인해 그 범위가 확장되고, 주변에 조성된 국립세종수목원과도 연계할 수 있어 타 지역에 비해 광범위한 생태 체류·관광·교육 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, 이로 인한 경제적 효과 및 만족도 역시 더 높을 것으로 기대됨





IV. 정책제언

● 합강습지의 국가습지보전지역 지정 추진전략

- 합강습지의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위해서는 “희소성”, “희귀성”, “가치성”에 초점을 맞추어 관련 기관(세종시청, 환경부, 한국습지학회 등) 및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큰 핵심 포인트라 할 수 있음
- (기본 및 전략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) 합강습지만의 가치발굴 및 목표달성,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 및 중장기적 전략계획의 수립, 생태적 지속가능성과 회복력에 중점을 둔 중장기 로드맵 수립이 필요함
- (추진위원회 구성) 위원회의 구성은 민·관·학, 시의회의원, 시민단체 등을 포함하여 15인 내외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음
- (공동심포지엄 및 학회 개최 등 공론화 자리 마련) 관계기관이 함께 주최하는 공동심포지엄 및 학회 개최를 통해 합강습지의 가치에 대해 연구결과물을 공유하고 공론화하는 자리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
- (시민의견 수렴 및 여론조사) 수차례의 토론회, 주민소통간담회 등을 통해 합강습지의 습지보호지역 지정 추진을 위한 여론 확산 및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져야 함
- (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 건의·승인 및 ‘세계습지의 날’ 기념행사 추진) 습지보호지역 신청 및 지정과 동시에 ‘세계습지의 날’ 기념행사를 합강습지 주변에서 개최할 수 있음

● 주변지역과 연결성을 갖는 자연계-인공계 보전관리 구역(Zone)의 설정

- 자연계 보전지역(합강습지를 포함한 3개의 습지, 전월산 등)과 인공계 보전지역(논습지인 장남평야와 국립세종수목원)을 연결하고 구역(Zone)으로 구분하여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

● 합강습지 육역화에 따른 생태계교란종 관리전략 필요

- 합강습지는 범람원 습지로 희소성이 있으며, 우리나라의 몬순기후 특성상 여름철 홍수발생에 의해 육역화 현상이 느리게 나타나는 편이나, 일부 육역화되는 곳은 관리복원 전략이 필요할 것임

● 생태공간과 교육·여가공간이 조화를 이루는 합강습지 활용전략 필요

- 세종국립수목원 및 전월산 등과 연계하여 습지주변에 사람들의 활용 공간(습지센터, 관찰대 등) 마련이 필요함
- 생물다양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전전략이 필수적일 것이며, 그 외 주변공간은 생태공간과 여가공간이 조화를 이루는 습지보호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임

● 지속적인 기초자료(모니터링) 축적과 민·관·학 참여유도

- 학술단체 및 지역 거버넌스 기반의 축적된 자료는 합강습지의 보전 중요성과 차별성에 대한 근거자료 및 교육 및 홍보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, 환경단체 및 시민이 함께 할 수 있는 ‘합강습지 연구모임’ 등도 추진할 수 있음

세종시 읍면지역 노후건축물의 안전관리방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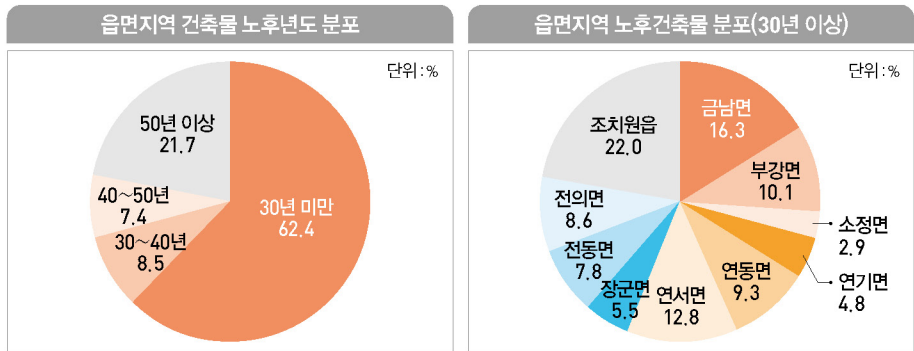
지 남 석 책임연구위원 |

I. 노후건축물 점검대상 변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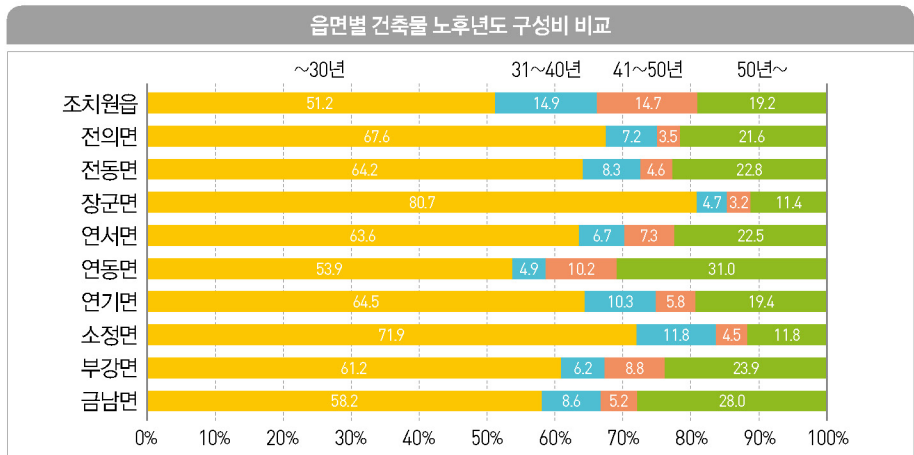
- 2020년 4월 종전 「건축법」의 노후건축물 규정 항목이 삭제되고, 관련사항을 보완하여 2020년 5월 이후 「건축물관리법」과 시행령이 시행됨
 - 종전 「건축법」에서의 노후건축물 점검대상이 변경(종전 20년 이상 건축물 → 조례로 정하는 30년 이상)되고, 일부 관련규정이 강화됨
 - * 노후건축물이란? 노후화 및 훼손으로 인하여 안전사고 위험이 높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하여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건축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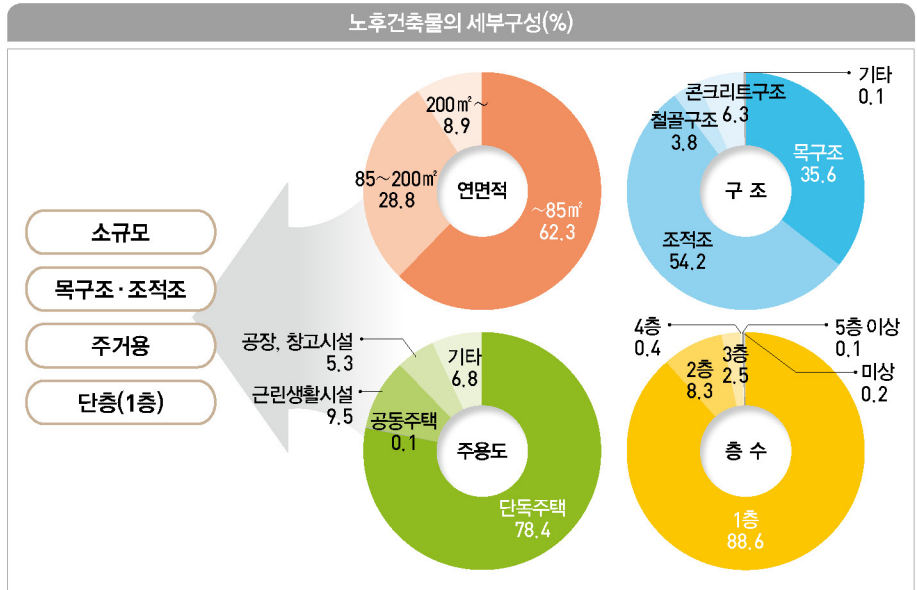
II. 세종시 읍면지역 노후건축물 현황

- 노후건축물 비중과 분포: 세종시 읍면지역의 건축물 중 37.6%(12,022동)이 30년 이상의 노후건축물임 (전체의 22.0%가 조치원에 분포)



- 읍면별 노후년도 비교: 읍면별 노후년도 구성비율의 편차가 큼(30년 이상 최고: 조치원(48.8%), 최저: 장군면(19.3%)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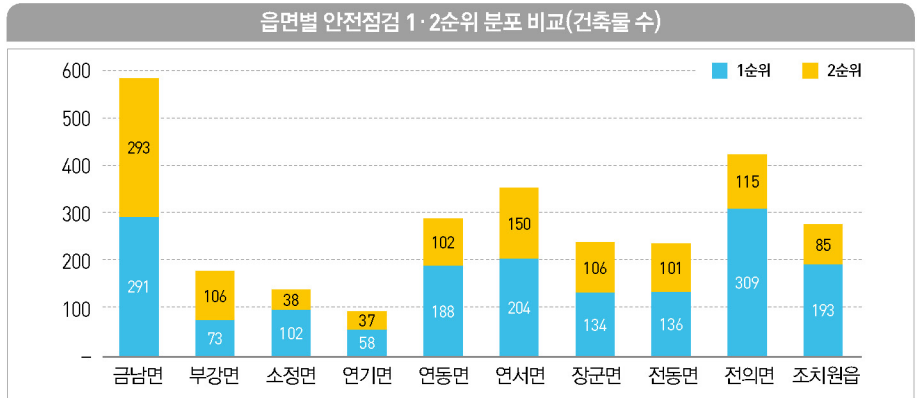


Ⅲ. 안전점검 우선순위 도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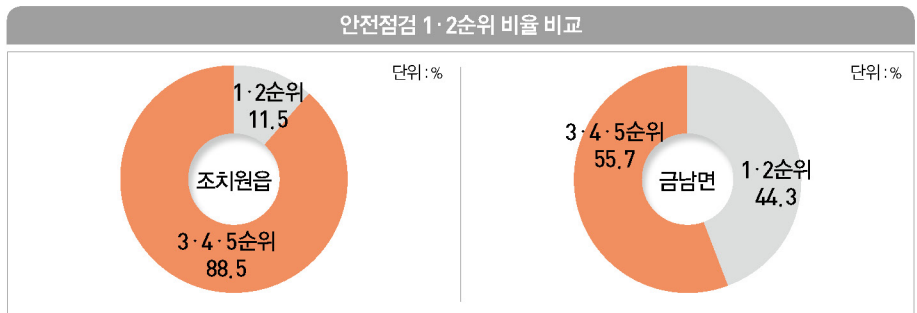
- 세종시 읍면지역의 노후건축물 분석을 위해 ①과세대장(9,646동), ②건축물대장(9,796동) 등의 2개 자료를 비교·검토하고, '연면적 85㎡ 미만 + 목구조 + 주거용 + 노후년도 50년 이상' 등을 1순위로 하는 과세대장 기준의 '안전점검 우선순위'를 도출함

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우선순위 선정안(과세대장 기준)			
순 위	기 준	건축물수(동)	누적(동)
1	①동연면적 85㎡ 미만, ②목구조, ③주거용, ④전 층, ⑤노후년도 50년 이상	1,688	1,688
2	1순위를 제외한 주거용 목구조 건축물	1,133	∑2,821
3	동연면적 85㎡ 미만 주거용 조적조 건축물	2,748	∑5,569
4	1·2·3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주거용 건축물	2,105	∑7,674
5	①비주거용 건축물 (구조 및 용도, 동연면적 미상 포함)	1,972	∑9,646

세종시 읍면지역 노후건축물의 안전관리방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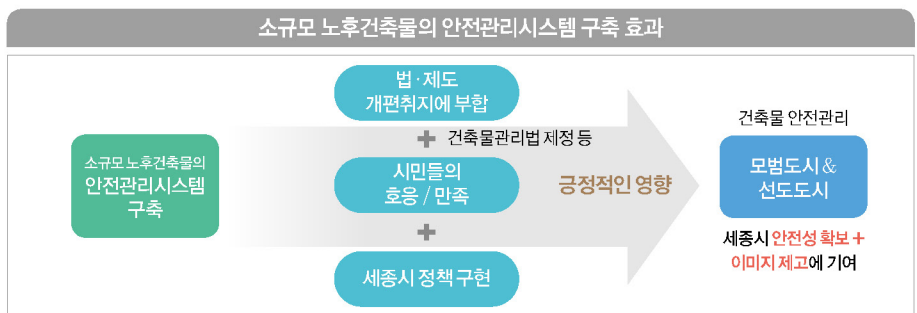


- 안전점검이 시급한 1·2순위는 금남면이 584동으로 가장 많은 반면에, 노후건축물수가 가장 많은 조치원읍은 278동으로 비교적 적게 나타나는 등 지역별 차이가 큼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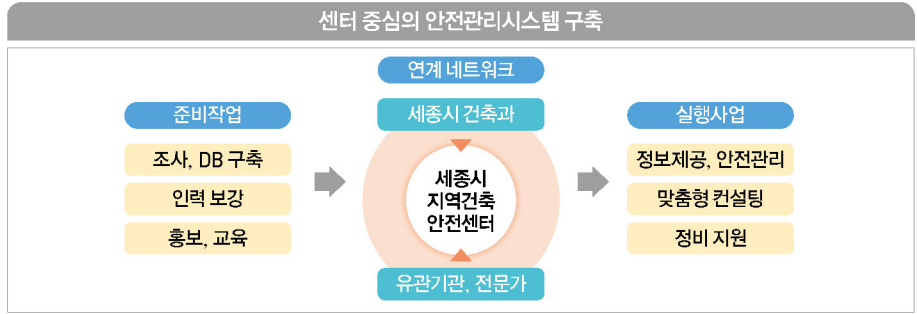
IV. 노후건축물 안전관리 방향

- 소규모 노후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시스템 구축과 체계적인 관리는 i) 「건축물 관리법」 제정 등 법·제도 개편취지에 부합하고, ii) 시민 호응과 만족도를 유도하며, iii) 안전도시를 표방하는 세종시 정책 구현에 긍정적인 영향을 제공할 수 있음





- 안전관리시스템 구축: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세종시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및 관리시스템의 거점이자 중심역할을 수행해야 함



- 단계별 안전관리 로드맵 작성: 안전점검 우선순위 결과를 토대로 단계별로 실태조사하여 안전관리 및 정비를 수행토록 하는 ‘안전관리 로드맵’을 제시함
 - 1단계: 단기(~2023년) - 집중 분포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작업을 추진하고, 이를 보완하여 1·2순위 실태조사를 진행함
 - 2단계: 중기(~2026년) - 3순위 실태조사 외에, DB 구축 완성, 정비 지원을 위한 공모/선도사업, 센터 인력 확충, 세종시 안전진단기관 설치 등을 진행함
 - 3단계: 장기(~2030년) - 4·5순위 실태조사 외에, DB 관리, 공모·선도사업 추진 등을 진행함



<https://www.dsi.re.kr>



 **대전세종연구원 세종연구실**
DAEJEON SEJONG RESEARCH INSTITUTE

34863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85(선화동)

Tel. (042) 530-3500 Fax. (042) 530-3528

발행인. 정재근 편집인. 임성빈 등록일. 2017. 10. 30. 등록번호. 대전중, 바00008